

외솔 최현배 선생의 삶의 철학

김 석 득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나라 사랑, 겨레 사랑

외솔 선생님의 모습은 말·글을 통한 나라 사랑, 겨레 사랑으로 상징된다. 그 분의 우리말·글의 연구나 정책, 그리고 교육이 모두 늘 그 사랑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바탕을 이루게 된 밑뿌리는 어떻게 내려진 것일까? 그것은 외솔 자신의 타고난 성과 주시경 선생의 가르침과의 상승 작용의 결과에서 이루어진 것임에 틀림없다. 오랜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이 땅에 근대적 먼동이 트이기 시작할 무렵이면 외솔 선생은 막 태어나고, 주시경 선생은 이미 새 사조에 따른 새 학문에 남다른 눈이 뜨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주시경 선생은 우리 나라 사람들이 지적·문화적으로 발전하는 길이란 사람의 정신 세계를 다스리는 말·글의 승상이 무엇보다 으뜸됨을 깨닫게 된다. 여기에 주시경 선생은 우리 문화를 열고 민족의 얼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말·글 연구와 정리 및 교육에 온갖 정성을 기울이게 되니, 이것이야말로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는 현명한 선각자의 선택이었다. 이 선각자가 유능한 많은 제자를 가르치고 기르되, 그 가운데 외솔을 발견하게 된 것은 우리 민족 문화의 유구한 밝은 미래를 위하여 맺은 귀한 결실이라 하겠다. 나라 사랑의 정신에 바탕을 둔 민족 단위의 말·글·얼의 일체적 언어관, 사람에게 주어진 창조 능력의 긍정, 그 능력의 적극적인 부림, 이것들은 주시경 선생의 철학이었고, 또한 이 철학은 그대로 제자들에게로, 특히 외솔 선생에게로 이어졌다. 이 사실은 두 분의 비슷한 삶의 과정에서 읽을 수 있지만, 주시경 선생의 나라·겨레 사랑의 가르침을 절대시하는 다음의 말을 적어 옮김으로써 같음된다.

나는 경성고등보통학교의 학생으로서 박동의 조선어 강습원에 나가서 일요일마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았다. 스승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이 어느 것이 나라를 사랑하고 겨레를 사랑하는 가르침거리 아닌 것이 있는가?(나의 존경하는 교육자 주시경 스승 '나라 건지는 교육' 158~65쪽에서)

일찍이 외설 선생의 삶의 철학과 국가관은 '조선 민족 갱생의 도'(1926년, 동아일보에 66회 연재, 1930년 초에 출간)에 잘 나타나 있다. 이후의 외설의 우리말·글의 연구, 정리, 교육, 보급, 그리고 정책적인 것은 모두 여기 담긴 정신의 실천이었으며, 이에 반대되는 나라 안팎의 모든 일들은 거치적거리는 장애물이요, 그 하나하나를 투쟁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그 투쟁의 역사는 사실로 전개되었으며, 그 정신적 바탕은 물론 나라 사랑이었다. 그러하기에 일제의 억압에서도 할 일 다하고, 죽음에 가까운 고문 앞(조선어학회 운동)에서도 끄떡 없이 설 수 있었으며, 질곡의 옥살이에서도 조국혼에의 동경을 시조로 읊을 수도 있었다. 아래 시조는 “해방이 사흘만 늦어도 끝없는 망국의 한을 안은 채 왜적의 총알에 쓰러지고 말았을 것”이라고 회고하면서 ‘나라 사랑의 길’ 머리말에 실은 것을 이 글 쓰는이가 옮겨 놓은 것이다.

임이여 어디 갔노, 어디메로 갔단 말고?
 풀나무 봄이 되면, 해마다 푸르건만,
 어찌하나, 우리 입은 돌아올 줄 모르나?

임이여, 못 살겠소, 임 그리워 못살겠소.
 임 떠난 그 날부터 겪는 이 설움이라.
 임이여, 어서 오소서, 기다리다 애타오.

봄맞이 반긴 뜻은 임 울가 함이러니,
 임울랑 오지 않고, 봄이 그만 저물어서,
 꽃지고 나비 돌아가니, 더욱 설어하노라.

강물이 아름아름, 끝난 데를 모르겠고,
 벼들가지 출렁출렁, 물속까지 드리웠다.
 이내 한 길고 또 길어, 그칠 줄이 없어라.

나라 사랑의 힘은, 제2의 민족 갱생의 도라 할 수 있는 ‘나라 사랑의 길’(1958)에 의하여 새로운 현대적 의미로 충전된다. ‘조선 민족 갱생의 도’가 먼동이 더 트일 겨를

도 없이 스러져갈 무렵, 겨레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 것이라면, '나라 사랑의 길'은 광복된 조국의 무궁한 독립과 건전한 발전을 촉망하며, 겨레의 새싹 청년 남녀에게 배달 겨레의 영구한 자유와 행복의 길을 당부한 것이라 하겠다.

2. 창조 정신, 개척 정신, 진취적 기상

외설에게서 두드러진 또하나의 모습은 창조·개척·진취적 기상이다.

사람의 본질적인 창조 능력을 긍정하고, 그 능력의 합리적 부림을 삶의 철학으로 삼는 외설은, 사람들의 사리와 사물에 대한 무관심, 애쓰지 않고 당장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으름성, 문제에 대한 궁리성 없음, 이런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 사람이 사람됨의 근본 뜻은 거친 것은 고르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묵은 곳은 일구며, 없는 데서 있도록 궁리하여 새로움을 지어내는 데 있다고 보는 외설은 지극히 미래 지향적인 개척자요,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창조자이다. 외설의 말·글 연구는 그 창조 정신의 발로요, 말·글의 교육, 정리, 보급 운동은 개척 정신의 실천이다.

외설의 저 많은 창조물 중 빼어난 지적인 소산은 '우리 말본'(1937)과 '한글갈'(1940)이다. 외설이 늘 우리 문화의 최상의 공탑으로 한글을 드는 것은, 그것이 우리 겨레의 창조력의 결과요, 그것이 우리 문화 창조의 원동력이 된다고 확신('한글만 쓰기의 주장'(유고, 1970))하기 때문이다. 생각컨데 '우리 말본'은 외설이 슬기를 짜 만든 지적 소산이요, 후학들의 학문의 원동력이 되며, 주시경 선생의 학문을 뒤 잇는 새로운 금탑이기도 하다. 외설이 한글을 드러내듯 우리가 이 책을 드러냄은 이 때문이다. 외설의 우리말 연구의 목적은 앞 사람의 업적을 이어 받아 민족 문화의 수호와 창조 및 겨레얼의 지킴에 있었으니, 그 분의 학문은 다만 학문만을 위한 학문이 아니었다.

다음은 잘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 글이다.

한 겨레의 문화 창조의 활동은 그 말로써 들어가며 말로써 하여 가며, 말로써 남기나니: 이제 조선말은 줄잡아 반만년 동안 역사의 흐름에서, 조선 사람의 창조적 활동의 말미암던 길이요, 연장이요, 또 그 성과의 축적의 끼침이다. 그러므로 조선 말의 말본을 닦아서 그 이치를 밝히며, 그 법칙을 들어 내며, 그 온전한 체례를 세우는 것은 앞사람의 끼친 업적을 받아 이음이 될 뿐 아니라, 나아가야, 계계승승할 뒷사람의 영원한 창조 활동의 바른 길을 닦음이 되며 찬란한 문화 건설의 터전을 마련함이 되는 것이다. ...내가... 선각 최 광옥, 유 길준, 주시경 여러 어른의 뒤를 이어, 외람히, 조선 말본의 연구 및 종리에 종사하여,...

(‘우리 말본’ 머리말)

외술의 새로움을 추구하는 창조적인 눈에는 스승의 학설이 그대로 모두 만족한 것은 아니었다. 인식론적인 낱말관, 논리적인 언어관, 그리고 언어 파생의 한계성 인식과 그 한계성 극복을 위한 끝바꿈법의 창안, 도움 풀이씨(보조 서술어)의 체계 확립, 이 모든 것은 주 스승의 체계에서 더 새로운 체계로 나아가 자리잡은 독창적인 것이다. 이리하여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한 근대 국어학의 선각자 주시경의 학문 시대는 현대로 들어오면서 외술의 시대로 넘어오게 된다.

우리 말본과 쌍벽을 이루는 ‘한글갈’도 훈민정음에 관한 일체의 역사적 기술과 한글 및 음운에 대한 일체의 논지를 전개함에, ‘신 경준, 유희의 유업을 잇고 아래로는 주 시경님의 가르침의 유지를 이루고자 했음’(‘한글갈’ 초판 머리말)이니 이는 ‘우리 말본’의 정신과 그 맥을 같이한 것이라 하겠다.

말·글에 쏟은 창조적 실천은 ‘글자의 혁명’(1947)에서도 찾을 수 있다. 언체 죽음을 당할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함흥 감옥 안에서 몰래 연구한 것이 한글의 가로글씨(나중에 ‘글자의 혁명’으로 출간)이다. “비록 옥중에서 죽어 없어질지라도 이것만은 세상에 남기고 뒷자손에게 전하고자 애쓰다가 옥에서 석방되어 이를 가지고 나왔다.”(‘글자의 혁명’ 머리말)라고 적은 것은, 첫째, 저 죽음을 내다보면서까지 진리 탐구에 몰두한 초인적인 나라 사랑의 열을 보임이요, 둘째, 우리 글자 생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창의력을 보인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세로(종적) 문화를 가로(횡적) 문화로 바꾸는 혁신적 뜻을 담고 있기도 하다.

이 밖에 어려운 말, 들어온 말의 잡초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모색된 순수 고유어나 창안한 말을 대신 심는 의식적 변화의 길을 터놓은 일, 한글의 기계화를 창도하여 그 연구나 보급에 정성을 쏟은 일, 이것들도 모두 외술의 선각적 개척이요, 진취적 기상 발로인 것이다.

3. 명석한 판단, 대담한 실천

외술을 가리켜 대쪽같은 성격자라 한다. ‘대쪽같다’함은, 옳고 그름의 판단의 명석성과 그 판단대로 옳음은 따르고 그름은 버리는 당당하고 정의로운 강인성을 뜻한다. 외술은 어떤 일이 그릇된 것이라고 판단되면 대담한 치유 방법을 취한다. 아편 중독자의 치유 방법은 아편의 전면 공급의 즉각적인 차단을 단행하는 것이어야 하고, 한쪽으로 굽어 자란 나무를 곧게 자라게 하는 방법은 반대쪽으로 대담하게 굽혀 놓아야 한다고

보는 것, 이것이 스스로 명재촉하는 사람들의 그릇된 습성에서 새 삶을 얻게 하는 외솔의 치유 철학이다.

4. 마무리

오늘날 한글 세대가 형성되며, 한글 문화가 이만치나마 뿌리내리게 된 데는, 뜻을 같이하는 수많은 이들의 피나는 노력과 아울러 외솔 선생의 나라 사랑, 겨레 사랑의 정신적 바탕 위에 이루어진 창조적 연구와 개척 정신 및 미래 지향적인 진취적 기상에 말미암음이 큼을 부인할 수 없다.